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10시
오전(2부)	2시
오후(3부)	5시
오후(4부)	8시 30분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2시
3부(오후)	5시
4부(오후)	8시 30분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8월 8일 (제1109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정직의 힘

미국에서 세탁공장을 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 그가 일개 동네 세탁소에서 직원이 70명이나 되는 큰 세탁공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가 조그마한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어느 날처럼 수거한 세탁물을 분류하면서 하나하나 주머니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세탁물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는 깜짝 놀랐다. 주머니 안에 무려 천 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주인은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정말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내 것이 아닌데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은 뉴욕타임지에 실리게 된다. 돈이라면 사람도 쉽게 죽이는 세상이니 이 같은 소식은 가문 땅에 단비 같은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이 뉴욕타임지를 본 모 비행기회사에서 회사의 모든 세탁물을 이 세탁소에 맡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작은 동네 세탁소가 대규모 세탁공장으로 확장하게 된다.

항상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라'고 가르친 보람이 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인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로님 부부가 역시 세탁물을 분류하다 아이들 옷 속에서 천 원짜리 하나가 나오자 전화를 해서 돌려줬다. 그 부모는 '그까짓 천 원인데 수고스럽게 뭇 하러 전화까지 했느냐' 했지만, 그 집사는 '애들 천원은 어른 백만 원이 셈입니다.' 하며 돌려줬단다.

나는 목회 37년 동안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자식은 아비를 닮는 법,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해야 한다.

주유소를 지나다 보면 '정량, 정품'이라고 쓴 곳이 많다. 그 글을 볼 때마다 나는 씩씩하다. '당연히 정량, 정품이어야 하는데... 오죽하면 저걸 써냈을까.'

성경은 왜 '진실로'를 365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오늘 깊이 생각해보자.

기도는 생명선(線)이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요, 믿는 자의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고(살전5:17), 목사님도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기도원에 문구까지 새겨 놓으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요, 안 하기 때문에 핑계거리만 찾게 되는 것이다. 하고자 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고, 길은 열린다. 목사님이 우리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런 질병으로, 가난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에게는 그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현재 나를 지옥 같은 고통으로 몰고 가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리운 기도원을 생각하며 기도로 영적 충전에 매진합시다!

대화하는 신앙생활의 기초이다. 마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생명선(線)이다. 어느 때 같으면 지금 우리는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한 여름의 영적 충전을 하고 있을 때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영적 보약으로 충전하던 그 기쁜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쁜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TV만 켜도 유튜브에 접속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찬양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 2시간 통성기도에 접속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환경을 이끌어가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못하는

해봐야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의 3분의 1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에 전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하고 달려온 소경 바디매오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죽기 살기로 소리 없이 다가가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군대 귀신에 붙들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젊은이를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앓은뱅이, 중풍병자 등 각색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천국이 있단다. 참고 인내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징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앞에 나가 문제를 고하면 가난에서,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거짓 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주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선(線)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1:38~42)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왜!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우라고 했을까!’

저는 그 답을 기도원에서 찾았습니다. 기도원에 닭을 많이 사졌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 후에 가보니 그 많던 닭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쥐도 많고 매도 와서 채가고, 살쥔이도 많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지. 쥐나 매가 못 들어오도록 망도 촘촘히 쳐라. 그리고 계란을 낳는 족족 먹어버리지 말고 부화를 시켜라. 그래야 닭이 늘어나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글썽 병아리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사준 칠면조도 새끼를 낳아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부흥했답니다.”라며 기뻐했습니다.

맞습니다. 알을 낳는 족족 먹어버리면 매일 그 상태지만, 알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나오고, 그 병아리가 자라 다시 알을 낳고... 그래서 지금 기도원 식구들은 예전보다 계란을 넘치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담당하는 사람은 애를 많이 썼겠지요. 남들 잘 때 한 번 더 닭장을 들여다봐야 하고,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는 혹 더위라도 먹을까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야 하는 이유요, 내일의 암탉을 키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No! 우리 교단의 젊은이 중에 해외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과 일대일 문자를 통해 지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사 하나 됐니? 하나 더 따라. 힘든 줄 알지만 이겨내라.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야 한다. 10년 된 산삼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란다. 50년 된 산삼도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지. 그러나 100년 된 산삼은 산삼이 사람을 택하는 법이란다. 100년 된 산삼 같은 자가 돼라. 그런 날을 상상해라. 넌 할 수 있어!”

그들도 놀고 싶겠지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맘껏 자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계란을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기에 제가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인물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당장 계란을 먹어치우는지 압니까?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니 현실주의자가 되고, 운명론자가 되어 버리는 겁

니다. ‘이깟 계란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먹어버리는 겁니다. 40대에 자수성가하여 빌딩까지 소유한 어느 젊은이가 탄식을 하며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아직 젊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돈을 조금 벌면 사표 쓰고 여행 떠납니다. 또 자동차나 바꾸고요. 그들은 꿈이 없어요. 현실만 달콤하면 만족하는 거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들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꾀야 합니다. 그 꿈이 있어야 오늘 계란을 먹지 않고 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이 나와 힘

이 생기는 겁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달

리고 있지요?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또래의 아이들처럼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맘껏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왜 참고 인내하며 훈련에 매진했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고, 사회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 꿈이 있었기에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한 겁니다. 자고로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낙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지치지도 않는 법입니다.

아굽, 요셉, 사도 바울... 그들도 꿈이 있었기에 힘들지만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굽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조카가 아닌 종처럼 6년을 더 일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은 열 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아굽의 임금을 착취했지만, 아굽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하는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그날을 상상하며 낮에는 더위를 무

릅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는 세월을 견디며 이겨낸 것입니다(창31:38~42).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가 쉽게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접하는 꿈을 간직했기에 힘든 세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창37:9).

목회 초기에 저는 전국과 전 세계에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보냈습니다. 원하면 거리불문하고 보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요. 더러는 그 돈을 모아 교회를 짓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준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디오 테이프

가 해외 선교의 초석이 되어

‘세계교구’라는 제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창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샘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이루게 되어 지금은 70여 개국이 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다시 저는 고래꿈을 꿉니다. 백만 명 집회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얼마 전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에서 백만 명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상상도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접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면 방송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 날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받을 영광, 곧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는 상상을 했기에 그는 술한 매를 맞고 만물의 찌꺼기로 전락하여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의 일생을 산 것입니다. 저 역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9~30)는 이 말씀을 받고, 늘 그날을 상상하며 살기에 온갖 핍박과 모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 없이 밝은 내일은 없다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들도 저와 함께 넓고 평탄한 길 다 놔두고 험작한 길을 가는 것은 그날의 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천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지옥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무섭고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면류관과 상을 받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교회 조의수 장로의 아내인 이영숙 권사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단 교회 다닌다고 주위의 눈총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 남편이 잘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을 신원하는 길이니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며 기도했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그 기도에 힘입어 조 장로는 지금 큰 건설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기도 중에 영혼이 빠져 나가자 그는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을 못 받게 되겠구나.’ 하며 말합니다. 그랬더니 빠져나갔던 영혼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금도 하늘의 상을 꿈꾸며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드리고, 생명보다 귀하다는 물질을 드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 날에 받을 면류관과 상을 꿈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계란이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내일이 암탉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고래꿈을 꾸면서 그 날을 위해 참고 이겨내고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자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의 예배도 비대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교회의 일군으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님들의 명단 작성과 열 체크, 그리고 손 소독과 2체 육관의 현금위원으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젊은 날의 소중한 헌신이 장래에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시대 목사님의 선제적인 결단과 조치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줌과 T그룹 전화 활용법을 교육시켜 조장, 구역장들에게 전달되었고, 전 성도들이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예배가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어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깨닫게 되어 예배를 더욱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첫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니다. 주변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 성도들을 보고 낙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보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중에 십분의 일 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 세상의 풍파를 보고 요동치 말고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귀히 쓰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안하고 안일한 환경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왕성하게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카톡이나 라인,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하여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나 교회신문 같은 것을 보내기만 해도 잃어버린 양떼들이나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말세에는 이보다 더 큰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To Be Succeeded ::

기도의 용사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머물던 어느 여름날, 음식에 이상이 있었는지 고열에 설사만 계속하다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엄마는 곧장 나를 들쳐 업고 보건소를 찾으셨지만 주사를 놓자마자 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숨이 멈춰버렸다고 했다. 의료진도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던 그 순간, 엄마는 주변을 돌아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보건소와 마을이 떠나갈 만큼 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고 여호와 이레,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다른 마을 어른이 오셔서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다 따고서야 숨이 돌아왔다고 했다. 엄마가 나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날마다 기도의 열쇠에 기름칠을 해왔기에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 열쇠로 하늘 문을 곧바로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은 엄마에게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적의 열쇠임을 체험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였고, 나에게 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초석이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를 잃은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다’라고 틈만 나면 외치신다. 이는 말세지말의 시

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잘되라고 잔소리하듯, 36년 넘게 변함없이 기도의 본을 직접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 영화 워룸(War room)에 보면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는 어느 젊은 아내가 기도의 용사인 노부인의 권면과 중보 기도 에 힘입어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내는 용사로 거듭나고, 나아가 남편과 자녀까지 예수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도는 말 그대로 전투(war)다. 코로나 시기를 디딤돌 삼아 기도로 내 영·혼·육의 녹과 때를 제거하고 부지런히 기름 칠한다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하늘 문을 열고 닫으며, 세상과 음부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십자가 군사들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본업에 충실해라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체신부 장관직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때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주일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그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했고, 임기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로 움직이며 주일 성수와 교사직을 감당했다.

한번은 기자들이 질문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그만하게 될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신앙인은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

과 건강, 재물, 권세 등을 주신 것은 하늘의 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고전10:31).

솔로몬 왕은 땅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으나 그 말년에 깨달은 것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기록한다(전12:13).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할 때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신다(마6:33).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코로나 시대, 바로 지금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본업에 충실할 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 있게 감당하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증거하라.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조금 구겨졌다고 이 돈을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 구겨져도 여전히 돈은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란 이 지폐와 같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어떤 환경, 상황, 조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나의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 값으로 나를 사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런즉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를 자랑하곤 한다.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의 보고 싶은 대로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70억 인구 중 발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나를 찾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 값으로 나를 사셨다. 장차 천국을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별레’(시22:6)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행13:22)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자신을 ‘죄인중의 괴수’(딤후1:15)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행9:15)이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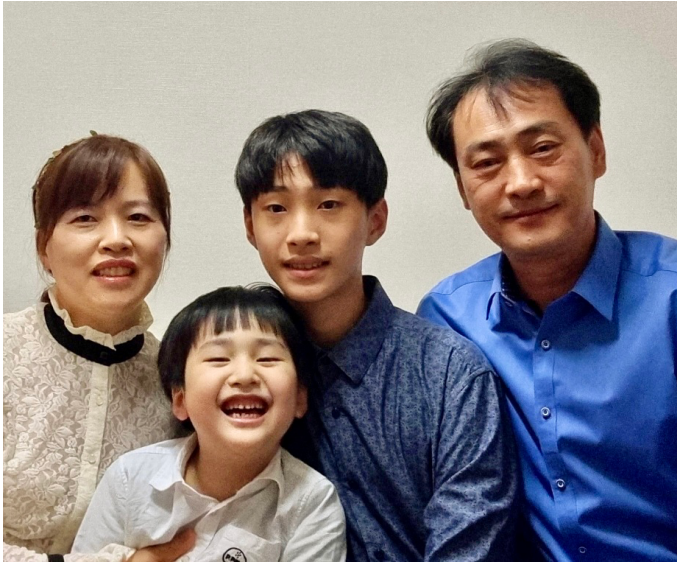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고, 말한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다. 자존심은 다른 말로 열등감이다. 자존심으로 승부해서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전무하다. 반면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나는 조금 변화된 것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보물이다. 높은 자존감, 나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늘 평안하고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새로운 본성에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도약하고 도전하자.

임택함 목사

:: 간중 ::

:: 귀를 기울이세요 ::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자!



저는 원주예수중심교회 최미영 집사입니다. 둘째 아들인 경찬이는 7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거의 안 하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대부분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검사도 해보고 언어치료도 해보라고 권했지만, 지방이라서 어린이 전문병원(서울)으로 가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 다. 기도하며 고민 끝에 5월 초 서울어린이전문병원에 예약(6월 10일)을 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총회장 목사님께 자세히 상담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배 후에 만나는 것이라고 하여 5월 19일 수요일에 예배 때 인천교회로 갔습니 다. 그날 설교 제목이 ‘살기 원하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였습니다.

지 5시간씩 작정기도를 시작했더니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웅얼이처럼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6월 5일에는 저녁 식사할 때 “아빠”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정확한 발음으로 “아빠, 엄마, 형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월 21일, 경찬이가 유치원에서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울동을 따라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셨고, 집에 와서는 종이에 ‘아빠, 엄마, 형아’를 써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리 내어 읽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글씨는 너무 잘 쓰는데 읽지를 못해서 애를 태우던 터라... ‘이것이 꿈은 아니지요?’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작정기도 시작 후 경찬이가 교회 정수기 옆에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자!>라고 쓰여 있는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끌고 읽어 달

라 하며 집이나 유치원에 가서는 종이에 매일 계속해서 쓰더니 정말로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보너스로 7월 3일에는 이사하면서 집주인(조장남 부부)께서 전자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기도한 것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 뻔했던 정경엄마도 그날(5월 19일) 목사님께 전화로 기도 받고 며칠 뒤에 퇴원하셔서 현재는 집에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2년이 넘도록 경찬이의 말문을 열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경찬이를 보며 실망도 하고, 혹시 평생 저렇게 말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며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도와주신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부모님을 비롯한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변화되는 경찬이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담임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총회장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들림 받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한눈팔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예수중심교회
박주성, 최미영 집사

눈물 흘린 남자

예로부터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울어야 한다’면서 감정적인 눈물을 꼭 참고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건만, 여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평생 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애2:1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렘9:1)”, 이처럼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나약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관련한 설교를 여러 차례 하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라는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울부짖는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영혼 몇 명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잠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울고 불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한 며칠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잠적했던 모든 영혼들이 그동안 연락을 못 받아서 미안하다며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애통하며 기도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송현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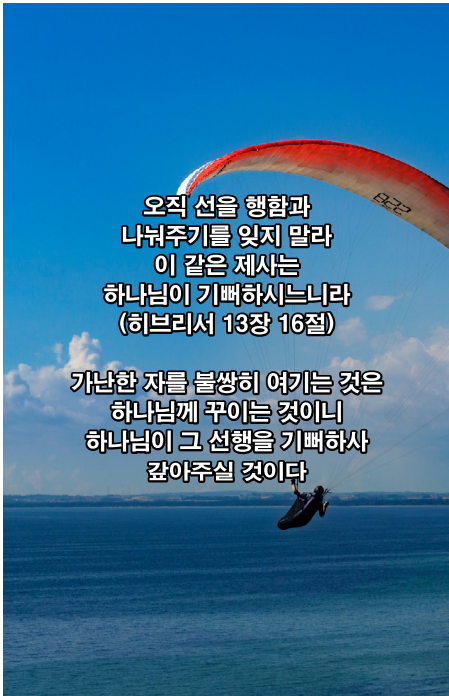
:: 동행하는 삶 ::

엄마라는 이름

엄마로 살게 된 지 10년.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책임감이 크고 무거운 말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하나의 우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보배롭고 소중한 귀한 존재. 그런 존재들을 양육하는 귀한 이름인데 나는 지금 엄마로서 잘 하고 있는 걸까! 엄마라는 이름은 그냥 거저 얻는 이름이 아니다. 임신해서 출산하면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진짜는 그때부터이다.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까지 엄마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음에도 엄마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한다. 엄마로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산다. 그래서 더욱 공부하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해도 후회와 반성, 자책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많다. 그런 내 삶이

지만 그러면서도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한 편의 기대감(?)도 있다. 육아의 최대 목표는 독립이다.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 다른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삶을 살아내다 보면 힘든 시련과 고난들이 있지만 함께 잘 이겨내야 한다. 부모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부모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육은 저절로 되는 줄 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 되기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잘 안되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운전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요령을 공부하듯, 부모도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요령만 알면 된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희생과 인내심을 발

휘하다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지는 때가 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아이에게도 불뚥이 튈다. 부모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도록 노력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무장하면 도움이 된다. 엄마도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니 실수도, 시행착오도 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육아에 임하는 것도 좋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맡겨주셨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주셨다. 엄마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행을 기뻐하사
값아주실 것이다